

16화 (종료)

- 녹음일시 : 2021. 2. 4. (목) 오후 6:30~8:00
- 녹음장소 : 판교 운중동 "함관령" (1층,2층)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정 영 학 아 예, 형님.

김 만 배 이리 와.

정 영 학 네, 안녕하십니까.

김 만 배 저거 해서,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전골 하나에 냉면 하나씩 하자.

정 영 학 네, 좋습니다. 예.

(음식 주문)

김 만 배 의장님 만났어.

정 영 학 저요?

김 만 배 아니, 내가.

정 영 학 아!

김 만 배 뭐야, 이게?

정 영 학 상품권이에요, 형님.

김 만 배 아유 아유. 아유, 또 가져왔어? 고마워.

정 영 학 예..

→ 회계장 의장 [전, 영남시의회]
[2012.9.1 ~ 2014.6.30]

김 만 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자기 절대 나쁘게 생각 안하
더라고. 그래서, 이해해주시라고. 영학이가 겁이 많고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영학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만 영학이가 그래서 이만큼 노동을 할 겁니다. 응? 응? 알았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대. 그 뭐 그 걸릴까봐 그러는가. 응?

종 업 원 여기 드리면 되는 겁니까?

김 만 배 예. 여기 나눠줘요.

종 업 원 하하하.

김 만 배 올라오셔.

정 영 학 올라오세요.

김 만 배 올라오세요. 또 있잖아, 여기. 홀서비스.

정 영 학 여기 자주 오시는가보네요.

김 만 배 자주 와, 여기. 두 개씩 나눠줘요.

종 업 원 아니. 하하.

정영학 SK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김만배 아니 나는 모르고, 560 왔다 이러길래, 그럼 그리로 해라. 왜냐면 뭐 산 데로 해야지. 향후 변수가.. 그지?

정영학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

김만배 그래서 그.. 나는 뭐 SK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왔다고 그러길래.

정영학 그러면 효성하고도 한 1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50만원 차이면.

김만배 그래. ^{정재호}
나중에 재창이는 여기서 어떻게 주냐. 니가 가져가서 줄래? 아니면 어떻게? 30억.

정영학 재창이가 원래 3월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뭐, 3월달에 일단 어떻게 형님, 줄까요?

김만배 좀 미뤄~

정영학 예. 형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김만배 응, 응. 좀 미뤄.

정영학 네.

김만배 응? 세무조사나 이런 것 앞두고 좀 미루자 이래. 합법적으로. 왜냐면 세무조사가 가장 중요하잖아. 회계적인 거.

정영학 아니 이번에도 금액이 많으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다.

김만배 응응. 그렇게 하고.

공사비를 현안이 너무 올려놔어. 그래서 좀. 뭐 말이 총 공사비 1,500억에 50억 정도 되는데, 더 올라갔어. 그래서 완범이보고 치라고 그랬어. 야,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냐. 공사 연장되면 어차피 관리공사로 하면 또 들어갈 텐데. 나 그런 것 못준다. 처라, 니가.

정영학 네..

김만배 병채한테도 비밀리에. 넘어가는 척했어도 저쪽에 적어놔. 우리가 설계 만약에 잘못하면..

지금 보니까 설계가 아닌 상태에서 공사를 주고, 설계 없는 거를 애네들이 계속 뜯어먹은 거야.

정영학 물량이 없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좀 그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김만배 응. 그래가지고 이 공사비에 대한 단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거야. 신 차장이..

정영학 (어. 박프로. 나 회의중. 업무상 회의. 네네. 네네네. 네. 아..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도 일단 고민 좀 해보십시오. 한달?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난 주식 잘 못해. 그래요. 하하. 알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죄송합니다.

김만배 응. 그래서 신 차장이 입찰할 때 여기 틈을 너무 본 것 같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얼마든지 나중에 올릴 수 있다하니 상태를 보고.

정영학 네.

김만배 정 지금 1,500억까지 해도 관리공사로 가면 또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제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양완범한테 그랬어. 개네들 의도가 관리공사로 갈거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

성문이는 사실 이런 걸 모르지. 얘기해도 몰라. 할 수 없어. 전공 아니면. 전공자가 아닌 걸 뭐.

정영학 전공자가 아닌데요.

김만배 그래. 음음. 그래서 내가 일부러 현장에 가서 휴일날도 (...) 그러는데, 신 차장이 있길래 신 차장하고 얘기하니깐, 양완범이 뭐 칭찬을 할래나.. 양완범 칭찬 안해. 능력 없다고 봐. 그랬더니 양완범이한테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

정영학 하하하.

김만배 그래서 주군한테 회장님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을 어떻게 (...) 야 새끼야, 왜 니 문제를 나한테 물어봐. 니가 사표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회장님. 판짓 해가지고 이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정영학 잘 됐네요.

김만배 이 새끼야 니가 무협지 쓰면 새끼야 나보고 (...) 응? 니 얘기 니가 해야지. 니가 사표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잘못하고 있어? 응? 오늘은 공사비 저기를 어떻게.. 응?

정영학 아, 그 양 전무가요?

김만배 내가 그랬지. 새끼야, 피엠으로 (...)

정영학 진작 열심히 좀 하지.

김만배 응. 그러니까 사표 쓰겠대. 그건 니가 알아서 해. 사표 쓰든 말든. 왜 나한테 물어봐 임마. 니 얘기 니가 쓰는 거지. 응? 지금에 와서 이 새끼야 니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있

어. 응? 아니면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응? (...)?

정영학 네. (...)으로 할까요?

김만배 응.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자식아 니가 그만두든 내가 무슨 상관있어, 임마.

정영학 (...)

김만배 무슨 상관있어, 내가 그랬어. 의미가 없잖아, 내가 그랬어.

정영학 진작 좀.. 보니까 내갈려 둔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앞에서 하니까.

김만배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 야 이새끼야, 너 이성문이가..

정영학 내갈려 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김만배 내가 그래서 그랬어. 이성문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니네끼리 해봐라 해서 너 안 줬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영학 그건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이 그럼 그 좀 줘야죠.

김만배 그럼.

정영학 그거를 내갈려 두면 아무리..

김만배 응. 그래서 내가 막 소리했어. 양완범이한테.

정영학 잘 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김만배 이 새끼야 니 잘못이지. 내가 그랬어.

정영학 그럼요.

김만배 아무리 대표이사가 이 새끼야 너한테 뭐라고 그런다고 (...)한다고.

정영학 본인이.. 예, 맞습니다.

김만배 니가 피엠이니? 이성문이가 피엠이니? 내가 그랬어.

정영학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김만배 누가 피엠이야? 내가 그랬어.

그리고 이 새끼야 사표 쓸라면 써. 반성할라면 죄송합니다 반성문 가지고
오든 뭐하든 니가 알아야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임마.
무협지 쓰니, 이 새끼야? 너 무협지 많이 읽었지? 내가 그랬어.

정영학 잘 하셨습니다.

김만배 내가 막 소리 했지.

정영학 아니 형님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좀 보니까 좀 이렇게 고집도 있고, 앞에서 이 대표 하는 거
를 그거는 좀 성숙된 저기면 그냥 뭐 하는데, 이게 또 그쪽 분들이 엔지
니어 쪽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김만배 호락호락하지 않아.

정영학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김만배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랄했어, 막. 너 이 새끼야, 니가..

정영학 왜 내갈려 두고..

이왕만장 주석

김만배 내갈려 두고 이 새끼야 이제 와서 이 씨팔놈아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군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사표 써, 이 새끼야. 아니면 니가 명예회복 할라면 죽나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해오든가 해와, 이 새끼야.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어제 들어오더니,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 (...) 그랬어.

정영학 그게 필요합니다.

김만배 음. 공사비만 죽나게 올라가는데 공사비 감독할 놈도 없어. 응?
현엔 좋은 일 시키겠다야.

정영학 네네.

김만배 고마워요.

종업원 감사합니다.

정영학 직원들하고 대표하고 공을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공을 다투는 일 없고. 어차피 정해져있고. 본인도 그건 미리 정해놓으신 거고. 이번 문제 때문에.
열심히 안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김만배 내가 뭐라고 그랬지. 나갈라면 나가, 임마. 뭐가 없어서 못했니? 이왕 못한 건데.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김 만 배 내가 그랬어. 야 이새끼야, 이왕 못한 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입주자들 가사용 승인이나 받으면 되는데. 아무나 하는 건데, 그건. 나갈라면 나가고, 명예회복 하겠습니까 할거면 해, 임마.

정 영 학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김 만 배 공사비 하늘로 올라가는 거 막고, 이 새끼야.
공사비가 이게 뭐냐? 내가 그랬어.

정 영 학 바보 된 느낌이죠.

김 만 배 야. 내가 그랬어. 이 새끼야 공사비가 이게 뭐야. 응? 공기가. 이새끼야. 서서히 늘어지게 가다가 갑자기 준공 앞두고 막 그쪽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누가 끌려가냐? 내가 그랬어. 니가 등신이야? 내가 그랬어. 너 뭐하는 놈이야? 내가 그랬어.
성문이한테 이런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할거야. 할 수 없는 거지.
유 상무 모르는 놈 데리고 가봤자 그 말만 하고.
그런데 성문이 역할도 있어. 음?

정 영 학 되게 정성껏 합니다. 그래서,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진짜 이번에 겪어보시면 정성껏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요령껏 하는 사람하고..

김 만 배 남옥이하고 재창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핑계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행정심판 가서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응? 설사. 응? B1도 그렇고 (...)이고.

그래서 행정심판 왜 졌냐고 그러면, 과거에 도시계획국에서 작성해놓은 문서가 유출이 돼서 졌다. 그래서 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응? 재창이한테도 이렇게 해놔.

재창

정 영 학 네네. 연락은 안 옵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 행정소송 가면 어떻게 할래? 응?

정 영 학 예, 예.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만 배 응응. 그런 차원으로 영학아, 공사비는싼 데로 가자.

정 영 학 좋습니다.

B1본다

김 만 배 응.

유동규는 오늘 남욱이 만난대.

정 영 학 아..

김 만 배 남욱이한테 그거 하는 것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땡규지 뭐, 우리는. 응? 법률적인 리스크는 남욱
이가 져야지.

그 이유가 남욱이는 받을 수도 있는거다 이거지.

정 영 학 아 예. 전..

김 만 배 그런데 남욱이가 유동규를 주지 않을 것이고.

남욱이는 유동규는 투자로 해달라는데, 투자로 해줬다가는 죽는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잠깐.

(전화통화) 어, 동규야. 음음. 하기로 했어? 음. 음.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하기 싫은 놈이 왜 그랬어. 음. 뭘 넘겨, 내가? 니가 하자는 대로 한 거지, 무슨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아, 니가 옥이한테 통해서 받으면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형이 그.. 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한달 전에. 아니. 무슨 말을 해? 니가 그랬잖아. 음음. 음음. 어떻게? 얘기해봐. 그러면 나한테 일체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얘기하면 안돼. 못받아도 그만, 잘 받아도 그만. 법률적으로도. 그래, 그래. 그러면 개가 나한테 소송을 넣으라고 그래. 아, 개가 전화 하면 받을게 내가. 전화 오면 그렇게 한다니까. 절차를. 그것 뭐 그냥 그냥 쉽게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알았어. 음~ 음~
법률적으로 되면 그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그냥 하청업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지금까지 쓴 비용을 제하고 본인이 600억만 가져간대. 음?
그래서 내가 그랬어. '700억 줄게. 700억 주는 데서, 니네들이 모르는 돈이 나갔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리고 또 나가게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영수 처리도 못하고 세금 처리도 못하면 응? 우리 한 400억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600억만 가져가겠대.
'아니 형이 700억 줄게. 700억 주는데, 거기서 남욱이 거를 공식적으로 빼. 60억. 음? 그리고 (...) 5억 준 거에 대해서 내가 회사에서 빌려간 것까지 다블로 (...) 10억으로 쳐서, 그래서 70억 공제하고 630억을 남욱이 소송을 넣으라고 그래. 그러면 소송에서 조정하는 걸로'

정영학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소송이 좀 오래 걸립니까?

김만배 아니, 걸릴 게 어디 있어. 조정하면 되지. 조정하면 돼. 응?

정영학 네.

김만배 남옥이가 1,000억 소송을 걸면 한 600 얼마로 조정하면 돼.

정영학 네네.

김만배 그러면 동규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남옥이가 주겠니? 합법적으로 본인 것 됐는데.

정영학 소송해서 찾아가면 그게 남옥이 돈이죠.

김만배 응.

정영학 남옥이가 어떻게 할지는 뭐 그 둘만의 관계야 뭐 모르는 거고요.

김만배 응, 그렇지. 넌 빠져있어. 법률적으로. 응? 넌 나중에도 해야 돼.

정영학 저야 뭐..

김만배 너는 세무적인 거랑 금액적인 거 대신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방법은 맞다. 응?

정영학 네. 세금, 지난번에 세금적인 것 설명을 드렸고.

김만배 응. 그렇게 해. 그거 이상 없다.
 그거 뭐 어때. 응? 공무원에게 돈 거래는 너는 모르는 걸로 하라고.
내가 볼 때 유동규는 저거 죽어.

→ *16차 19. 29쪽
 * 2021-4-22차
 유대론 (7쪽)
 - 남옥 해가 되는
 것임

정영학 아니 저야 뭐 아는 것도 없고, 소송해서 찾아가서 뭐..

김만배 아니 저러다간, 유동규 저러다가 죽어.
법률적인 것 (본인이 리스크 (...))
지금 안줄 거야. 응? 남욱이 투자로 주든.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만약에 남욱이가 물어보면 '나한테 묻지 마세요'

정영학 아니 저하고.. 하도 저 욕을 많이 해서..

김만배 '그런 얘기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정영학 예. 저는 아예 모르는 이야기구요.

김만배 응. 모르는 얘기고, 세무적인 것만 물어보면..

정영학 예. 세금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응. 거기서나..

정영학 예. 남 변호사도 제가 세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유 무섭더라고요. 핑계를 대는 거라. 아유 되게..

김만배 리스크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정영학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많이 나온다고 책임지라 해서, 나도 그만큼 내는데 어떻게 하나. 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뭐 회사에서 돈을 그냥 송금합니다. 본인한테. 송금해놓고 비용처리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거도 없이.

김 만 배 그런데 천화동인1이 유동규 거라는 소문이 회사 내에 났어. 왜냐면,

정 영 학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 만 배

양원병전부.

양 전무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옥이가 떠돌고 다닌다며. 소송가는 일도. 은행에 지난번에.

그래서 유동규가 옥이한테 물어봤대. 왜 그런 얘기를 할라고 그러냐 하니
까, 만배형이 아무래도 독식하면 혼자 먹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정 영 학 실제 몰랐던 일이고, 또 옥이한테 연락이 와도 제가 모르는 거고.

김 만 배 이거는 (...)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응. 전화하라고 그래야겠다. 내가 전화하면 안 되고.

(전화통화) 어. 여보세요? 음. 그러면 (개보고 전화하라고 그래. 언제든
지. 방법에 대해서. 응. 음. 그래 알았어. 인제 앞으로는 일체 얘기 안할
거다 이. 응. 그래 그래. 응. 응응.

돈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천화동인1이 차명이다 이렇게 해서 소명을 해야 돼, 남옥이가.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그러면 천화동인1에 대한 차명인 이유를 남옥이가 법률적으로 소명을 해
야 돼. 그래야지..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너는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돼.

정 영 학 아 예, 저는 뭐 모르죠. 예.

김 만 배 음음. 그래야지 만이 너는 이 일에 관여가 안돼.

정 영 학 예. 전 몰랐고. 남옥이가 소송해도 제가 모르는 거고. 실제 몰랐고.

김 만 배 음음.

정 영 학 그리고, 실제 몰랐구요.

김 만 배 그래. 형은 근데 조정을 할거야. 법률적으로.

정 영 학 저는 뭐 거기에 전혀 아는 사항도 없고.

김 만 배 맛있다, 이거.

정 영 학 네. 표정이 좋으신데요?

김 만 배 너무 시달렸어. 왜냐면, 내가 그랬어. 동규한테.

'돈 안 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져가라. 그런데 니가 말하는 다시마 회사를 차려서 니가 상식적으로 회사를 1,000억에 어떻게 인수하니' 응?

정 영 학 아..

→ 유원옥당스

김 만 배 '당장 회사를 인수하니' 아무 상관없대.

'그건 아니야. 형이 아니면 배임으로 죽어'

뭐 투자로 해달래. '야, 투자도 뭐 사업거리가 있고 뭐 있어야지 그게 투자할 게 있고 그게 투자가 되지. 그러면 안돼' 음?

차라리 그러면 남옥이 통해서 일부를 줌 해달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거절했다가 나중에 그랬어.

'그러면 이 돈 전체를 옥이가 가져가서 옥이가 너한테 투자해주는 걸로 해라. 내가 옥이라면 안하겠지만, 한번 물어봐'

옥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거지.

↓
남옥

↓
유동규

정영학 네..

김만배 형은 좋아.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맨날 해줘.

정영학 돈 욕심이 있네요. 남욱이가.

김만배 남욱이가 안 줄 거야. 내가 볼 때.

정영학 남욱이 소송한다고 합니다. 남욱이가.

→ 유동규

김만배 응. 문서를 받아놓을까 말까? 남욱이하고 동규한테.

정영학 형님이.. 저는 잘..

→ 김만배

김만배 남욱이가 안 줘도 나한테 이의제기 안한다는 거. 응?

그리고 남욱이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나한테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정영학 저는 법적인 건 잘 모릅니다. 형님이 한번..

김만배 아니 그래도 해놔야지. 그지?

정영학 네..

→ 남욱 ⊕ 김만배 ⊕ 유동규

김만배 아니, 말이라도. 이제 남욱이랑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나는 영학아,

정영학 네.

김만배 형은 이게 속편해.

내가 그랬어. '3회에 걸쳐서 주겠다. 왜냐면 세무조사도 안 나왔고 이래서 어차피 돈도 없다, 회사에. 너랑 나랑 금전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는데 돈 때문에 처리 못한 거잖아. 나하고 이런 얘기 상의한 것도 없고'

정영학 아 예. 저 진짜 형님..

김만배 그러면.. 무지 싸웠어. 이것 가지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 이랬어. '형이 남욱이가 소송해서 형이 조정하는 걸로 해서 넘겨줄 테니까 그리로 가서 받아라. 찍자' 그래서 그날 물어본 거야. (...) 내가. 진짜 해달라고 그랬지. 몇 년이야 그게? 투자금이 (...) 몇 년이야?

정영학 일단 세법상으로는, 법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세법상으로는 대손처리를 할 거구요. 대손처리도 이게 대손인지 아닌지는 실질에 따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음음. 객관적으로 말하면 내 문제다, 남욱이 문제다 이런 걸 떠나서 세금적으로 볼 때 (...)

정영학 (...)

김만배 결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정영학 예. 남욱이가 지꺼다 해서 지가 갖고 가서 알아서 하는거야 뭐 형님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고.

김만배 그래서 먼저 전화도 안할라고 그래. 이 새끼 녹음하니까. 남욱이. 내가 제안했다 이런다고.

정영학 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만배 음. 그리고 한번 이런 게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정 영 학 둘이 가깝게 지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형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정 영 학 둘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고.

김 만 배 응. 그럼.

정 영 학 준공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김 만 배 음. 이거야. 영학아. 무슨 얘기했냐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준공하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가 (...)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 6천 가구가 들어와서 입주할 한다
고. 그지? 제일건설 (...) 빼고.
그렇다면 우선 2천 세대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
할라면 가사용승인을 해줘야 돼.

정 영 학 예. 임시사용승인.

김 만 배 응. 이거를 뭐냐면 전기, 수도, 통신, 도로 이거는 넣어야 돼.
이거는 해줄거야. 해주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자기네 공기 내에 못한 부
분이 서류상 했다 그러고 뒤로 미뤄서 관리공사도 (...) 나온거야. 응?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러니까 여기서 도장을 찍어주면 안돼. (...)
그리고 우리도 이걸 받아서는 안돼.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그런데 알아야 될 문제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아니 이게 송전탑 진입로, KT

그리고 저 버스차고지 용벽, 이 세 가지가 있어. 이건 현대엔지니어링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책임이야.

이게 그런데 애네들은 여기에 집중 부각시켜서 자기네가 늦어지는 거를 현혹시키고 있어. 왜냐면 생태수로. 생태수로 밑에 방사성.

그런데 핑계를 이렇게 댈거야. 설계가 늦어서 (...)

그런데 우리는 고가 수주를 (...)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설계관리를 누가 했는지 나는 (...)

그런데 설계가 없는 데다 (...)를 만드니까 공사비를 엄청나게 업 시키면서 (...)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김만배 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지금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됐거든. 응?

정영학 저희가 CM 쪽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만배 응, 그래. 자. 그러니까.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조금 (...) 그리고 관리공사 하는 부분도,

정영학 없애고.

김만배 없애고서 업 이제 그건 안돼. 여기서 추가비용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응?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진양희는 신 차장과 (...) 진양희는 이 말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양완범이가 하든 병채가 해야 돼. 양완범이를 시켜야지. 병채하고.

자, 이제 터널. 터널을 4월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형이 볼 때는 늦어지는 이유는 이걸 시하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걸 푼다 안해준다 하는 이유가 현안이 무슨 작업을 한 것 같애.

(...) 터널에 (...) 할라고. 왜냐면 기일 내에 준공 못하면 현안이 지체보상금액이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양완범이나 진양희가 했어야 되는데. 병채는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정영학 전공이 아니니까.

김만배 전공이 아니니까 의심은 가는데 그걸 되치기할 게 못돼.

정영학 양 전무 혼내신 건 잘하신 겁니다. 양 전무가 해야 또 진양희가 움직이니까.

김만배 음음. 그래서 성문이는 몰라. 그리고 의욕만 앞서.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 양 전무가 (...) 만들어준 게 성문이야. 그래서 내가 성문이보고 야 이 새끼야, 개네들 잘한다 (...) 해야지, 왜 니가 이 새끼야 (...) 니가 왜 가블라고 그래? 니가 가지도 못하는 새끼가. 가다가 재네들이 가게 해야지.

정영학 원래 저 같아도 이게 본인이 잘하는 파트가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견데 말 안 들으면 제가 막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김만배 응?

정영학 제가 너 가만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다음에 제가 밤 새워서 하든지.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 습성인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 너무 컸어요.

김만배 그리고 성문이가 몰라. 유 상무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자른다.'

왜냐면 나는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 명확하게 준공을 못할 거라고 작년 7월서부터 현장에서 얘기 나오면 정신을 차려야지. 포스코하고 현대건설하고 준공 못한다고. 이 실력으로. 응? 이 실력으로 준공 못한다고. 응? 화천대유는 듣보잡이고. 현엔이 가지고 논다고. 응?

정영학 네..

김만배 공사비는 쪽 올라가고 (...)
그러면 양 전무도 꼬드기든 차단을 좀 미리 시켜야지. 응? 이렇게 빠져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시가 인수인계 받아가는 것도 (...) 보니까.

정영학 네.

김만배 진양의 실력으로 안되고 성문이 실력으로도 안돼.
형이 봤는데 과장들도 친한 놈이 하나도 없어. 음?

정영학 예예.

김만배 과장들이 결재해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응?

정영학 그나마 좀 늦었지만 형님이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김만배 음. 그래서 성문이기도 그렇고. 성문이는 내가 지적하는 걸 이해를 못해. 얘기해보면 알잖아. 응?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얘기하고 나면 (...) 받아서 이해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성문이를 욕하는 건 아니야. 업무적으로. 그런데 양완범이는 정신 차릴거야.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그게 그렇더라구요. 그냥 앞에서 이 대표 챙길 거는 그냥 이 대표 승인 뭐뭐 그냥 뱉어버리는 것 같더라구요. 언젠가 포기하고 도와달라 하면 하는 거고.

김 만 배 그런데 선을 넘었어.
위에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할까?

정 영 학 예, 형님 좋습니다. 커피 맛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구. 아이구.
계산이요.
네, 감사합니다.

종 업 원 감사합니다.

정 영 학 네.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미련은 좀 버린 것 같긴 합니다.

김 만 배 양 전무? 아니, 저기 이성문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음. 300억 돈이 영학아, 우리 돈 저거 얼마 잘려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싸게 해서 니가 많이 벌어봐. 어차피 그러면 너도 가져가고.

정 영 학 아니 저는 뭐..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렇게 해. 왜냐면 어차피 한 거 벌어야지 뭘. 응?

정 영 학 형님, 공통비 많이 쓰십시오. 허허.

김 만 배 그래서.. 커피숍 나쁘지 않지?

정 영 학 예.

(2층 커피숍으로 옮겨서)

정영학 아 예. 함관령 2층 커피숍.

(잠시후)

정영학 자리를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김만배 응?

정영학 어디가 편하시겠습니까?

김만배 아니, 아무 데나. 여기 앉아. 여기.

정영학 예.
현대건설하고 한 300억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 응. 니가 (...) 결정해. SK로 할지, 효성. 나는 두 개는 상관없어.

정영학 형님이 결정하신 게 맞아 보입니다.

김만배 SK?

정영학 예.

김만배 나는 상관없는데.

정영학 저도 상관없는데요.

김만배 왜냐면 우리 돈을 벌어야 돼.

정영학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 만 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거..

정 영 학 저도 형님 생각이 그냥 (...)

김 만 배 SK.. 현엔 애들이 볼 때. 그래서 공사비를 우리 원래는 다 (...)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공사비에 관련해서 (...) 했다는 거를 알면서도 (...).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맨살을 보였어. 너무 친하고 너무 속살을 (...)
그래서 (...) 되는 게 유 상무 밑에 누구를 하나 넣어놔야 되는데. 응?
응? 유 상무를 (...)

정 영 학 (...) 저도 모르는 분야이고, 또..

김 만 배 응. 나도 그래.

정 영 학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갑자기 늘어나니까.

김 만 배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공사로 가면 형이 볼 때는 2,3백억은 뽑아갈 것 같
애. 형이 볼 때. 그러면 그때 (...) B1 날라가는 거 (...) B1 너 많이 가져
가.

정 영 학 아니 저는..

김 만 배 아니 아니, 형이 줄게. 형을 믿어.

정 영 학 네네. 300억 차이면 사실 브랜드는..

김 만 배 SK (...)
성문이라도 뭐 하나 꺾히면 (...) 그게 좋은 거는,

정 영 학 현대에 대한 아쉬움이 끝끝내 있길래, 그거는 분양가가 이겁니다. 분양가
가 확정이 됐으면 오히려 분양을 잘하는 거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아침에 그냥 이성문 대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옵션 포함이나. 옵션도 평당 20만원 최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 30만원까지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SK 옵션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거의 그냥 노마진으로 들어온 것 같다. 일이 없
어서.

김 만 배 효성에 일이 없지.

정 영 학 네네. 그러면 쓸 수도 있다. 계약서만 잘 쓰고.

김 만 배 그걸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한대.

정 영 학 검토할 능력은 솔직히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제가 잘 아는 분야
다, 모른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수지계산 할 때 보면,

김 만 배 종길이도..

정 영 학 예. 종길이 시키면 됩니다. 인허가도 종길이 시키면 됩니다.

김 만 배 응. 그리고 최윤길 의장이 왔기 때문에. 최윤길 의장이 너에 대해서 (...)
아무런 문제 없어. 그리고 어떤 비밀도 나가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을 믿어. 응?

정 영 학 예, 예. 요즘 판교가 시세가 5천정도 됩니다. 동판교. 서판교는 4천6백 초
반. 건설비만 낮추면 (...)하니까.
인제부터는 현대에서 분양하던데, 지금 (...) 아닙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어도 됩니다. 지금.

김 만 배 그래. 그리고 SK 하든 (...)

정 영 학 제일 비쌉니다.

2021-2-4

김 만 배 (...)

정 영 학 예, 예. (...)

김 만 배 그런 소리 안 들어?

정 영 학 아니요.

김 만 배 그런데 그것도 비밀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정 영 학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거.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정 영 학 일단은.

김 만 배 그것도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너한테도 비밀로 하고 싶어.

정 영 학 돈 많이 먹었습니까?

김 만 배 80억 돼. 65억 (...)

정 영 학 형님이 재테크를 잘 하시더라고요.

김 만 배 형이 한 게 아니야.

정 영 학 아니 뭐..

김 만 배 (...) 다른 이야기. (...) 우리 도와줬던 얘기인데.

정 영 학 그걸 떠나서,

판교운중동
"산은 아필바움" 이영동
- 천화동1호 소유.

2021-2-4

김 만 배 응. 무슨 말인지 알지? 형도 (...)

정 영 학 아니, (...) 65억, 80억 되는 것들이 15억 많이 올려놨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러니까 영학아. 그게 안전해. 수원 SK(...) 응?
603호에 여기는 조재연 대법관님 따님이 살아. 대법원 도와줄 수 있어.
응? 너한테는 얘기해.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김 만 배 여기 따님이 살아.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주식은 형이 전문가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현대차에 미래가 있다고. 엘지전자하고.

정 영 학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옛날에 한번 형님이 벤츠 회장이 와가지고 현대차 엔진은 주머니에 넣고 가고 싶다 했다 했습니다. 그때 전기차.. 아니, 현대차.
아유. 그 이후에 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저는 주식을 안하는 이유가, 회계법인은 필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감리 받아야 되고. 안에 것도. 참석을 할 걸 그랬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이제 영학아, 이런 게 있잖아. 너랑 나랑 아무리 신뢰했어도 서로

뭐가 깊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본심을 보고 이런 과정이 (...) 간단한데,

정영학 예. 저는 뭐..

김만배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우리 정 회계사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인정하고, 또 파트너로서 (...) 생각해.

정영학 감사합니다. (...)

김만배 나는 선은 후가 되는데 가다가 잘못된 부분, 의도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후려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는 (...)

정영학 네네. 저도 뭐 특별히 오해도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김만배 형을 믿고.

정영학 네네. 그냥 안전 때문에 그건 뭐 잘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형님 말씀하신 것 항시 그 때문에, 뭐 형님한테 하나도 제가 뭐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김만배 그리고 나는, 어떤 다른 (...) 안해.

정영학 예. 이번에 (...)

김만배 그럼. 응. 요번에도 (...) 왜냐면 나중에 친하게 얘기하면 애가 줄 놈이 아니야. (...) 응? 나는 당시 주식을 (...) 너는 나한테 (...)

정영학 능력 없다고.. 하하.

김만배 동규는 (...)

동규는 형이 이제 5천만원 (...) 남욱이한테 1,000억을 주는 거야.

그런데 3천만원으로 줄이면 (...) 만들어놓고 그래서 투자라고 얘기 (...)

정영학 네..

김만배 지금까지는 숨길 수 있는데 더 이상 못 숨겨. (...) 덮어줄 수 있어.
덮어줄 수 있어?

정영학 일단 뭐 요즘 워낙 거기서도 (...)

김만배 안돼.

정영학 요즘 하도 금융정보원에서도 (...) 이재명 도지사 그..

김만배 경영금지.

정영학 경영금지로 해서.

김만배 그런데 (...) 아니야. 차라리 제삼자를 주고 증여로 받아가든지.
증여는 세금 내면 (...) 응?

'동규야, 형이 배당을 받아서 그 현찰을 줄게. 수표로. 그것도 안되면 투
자는 아니고. 투자는 형이 죽어. 그럼 니가 좋아하는 남욱이한테 혹시라도
달라고 그러면, 몽땅 남욱이보고 소송을 넣으라고 그래. 그럼 (형이) 700억
에 합의를 해서 비용 제하고 주면 되잖아'

100% 받아갈 거라고 다. 남욱이 돈 주면.

100% 남욱이가 안 주면 못 가져가, 유동규가. 응? 그지?

↓
김만배.

정영학 B1 인허가는 (...)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만배 아니 아니야. 나는 대장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B1은 인허가 (...)

정영학 2월 규정 지나면. 아니면 3월까지로. 그때는 사업 목표가 2월말인데 (...)

김 만 배 그러면 그거 내가 챙겨볼게.

정 영 학 네. 한번 챙겨보십시오.

김 만 배 (...) 불러서 너하고 나하고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

정 영 학 테라스라는 형태가 판교가 처음입니다.

대우는 했습니다만, 대우는 뒤에 공간을 띄워놓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상태이고요. 그 복설계하면 우리는 뒤에 공간을 띄워놓은 거가 처음이라. 아마 그 부분은 저도 (...)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김 만 배 그리고 앞에 (...) 작업하는 땅이 있어.

정 영 학 저한테는 이야기 안할 겁니다.

김 만 배 오해해서.

정 영 학 오해 안합니다.

김 만 배 아니 그게 대장동 땅이어서.

정 영 학 그런데 (...) 이게 좀 그..

김 만 배 아니 아니 (...) 우리처럼 그렇게 (...) 형은 왜냐면 이해됐고. 여기는 의도한대로 (...)것 같애. 응? (...) 응? 그래서..

정 영 학 그것도 형님 뒤에서 그냥 한 거예요. (...) 해서.

김 만 배 그래서 (...)

정 영 학 가능합니다. 하하.

→ 조재현 대변인
(비밀해정처장)

김 만 배 그건 따블이.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 겠습니다. 음?

정 영 학 (...) 현재.

김 만 배 그거. 그게 그거야.

정 영 학 그쪽에 (...)

김 만 배 응. 그 부분이 그분은 (...) → 조재현 대변인 (비밀해정처장)

정 영 학 그런데 형님이.. 아니 뭐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소송이 되면.

김 만 배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이한성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정 영 학 아니요.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선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할 때.

김 만 배 그럼. 왜냐면 (...) 약속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 (...) 이러더라고. 그걸 제가 (...) 하는 것 (...)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게,

정 영 학 말이 안되죠.

김 만 배 (...)

정영학 그러면 안되죠.

김만배 응.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랑 곽상도랑 (...) 깊은 대화를 했대.

정영학 (...)

김만배 (...) 곽상도한테.

정영학 어디서..

김만배 몰라 나도. 양주에서 얘기했겠지. 개가.
(...)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 (...)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나는 일단 그 일이 마무리 될 줄 알고 저거를 그러더라고.
형은 (...) 이게 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2,000억으로 생각해서 너
1,000억, 내 1,000억 회계를 니가 해서 했잖아.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까지 (...) 이렇게 해서 그거는 (...) 이게 그렇게 처
리하면 비용이 600억 정도 (...)할 거 아냐. 그러면 끝.
그리고 니가 남옥이 저거한대매. 응? 니가 내준대매 새끼야.
그러면 (...) 니가 낸대매? 그러면 니꺼에서 빼. 지가 만약에 (...) 빼. 그리고 여기는 현찰 5억 준 거 (...) 내가 5억을 받으려면 10억 든다.
(...)
그런데 보자고 그러고 다른 얘기는 안해.

정영학 아니, 일단 뭐 저도.. 그래도 (...)

김만배 (...)

정영학 아니 그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 2021. 1. 31, 5억원 (유동유)

김 만 배 (...) 응?

정 영 학 대단하십니다. 하하.

김 만 배 근데..

정 영 학 형님이 (...)

김 만 배 대법관이니까. (...) 8년을. 그런데 (...) 어차피 같은 대법관이고.
그런데 내가 빌라를 하나 (...) 금강이 지금 준공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
고.

) 정 영 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하면 (...) 할 것 같은데요.

김 만 배 응.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면은 (...) 끝나.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되게 (...)하는 사이야.
그래서 형이.. 일단 오해는 하지마.

정 영 학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괜히 여쭙봤네요.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얘기는 해줘야지.

정 영 학 SK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냥 뭐 제가 한것도 아니고, SK 브랜드가 나쁘냐.
나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하다보면 그것도 좀 실무적으로 하다보면요,
SK도 우리도 출발을 했지만, 하다보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 만 배 아유, 그래.

정영학 거 봐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거라 하면 안될 것 같고요.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 같이 올라갑니다.

김만배 그럼.

정영학 이 기업문화가 원래 효성이.. 효성, 대우, 현대 같은 데가 더 악랄합니
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SK는 하여튼 그런 문화가 그냥 뭐 조금 (...) 보니까 악랄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들이 무슨 마인드도 좋고.
형님도 조금 무리가 되면 좀 이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그거 갖고 인제..

김만배 그래. 그럼.

정영학 사항이 틀리다는 등 뭐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김만배 그리고,

정영학 실무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

김만배 B1에 대해서 자신 없어. 왜냐면 대장동 (...) 무슨 수로 빌리느냐.
행정심판도 100% 이긴다고 그러더니 이 새끼들 덜렁 졌잖아. 웬?

정영학 네..

김만배 소송도 여차하면 잘못하면 감당 못하는 거야.

정영학 예..

김 만 배 무슨 소송 장답을 해야지. 행정소송. 응? 그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러니까 B1에서 돈을 벌어서 너도 가져가고, 돈을 좀 가져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져가면 돼.

정 영 학 제가 뭐 특별히..

김 만 배 (...)

정 영 학 50억 빌려드린 거에 대한 이자 주시면 됩니다.

김 만 배 많이 줄래. 이자도 주고.

정 영 학 아니 괜찮습니다. 이자는..

김 만 배 아니 아니, 더 줄게. 그리고 재창이 결 여기서 해결하고. 우리 회사에서. 응? (...) 영학이가 처리하기에 법률적 리스크가 있어서..

정 영 학 이미 60억 나갔습니다. 나가고 30억만 남았습니다.

김 만 배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영학이가 주는 건데, 여기서 주는 걸로 해. 응? 응?

정 영 학 재창이 (...)합니다.

김 만 배 아니면 너 줄 테니까 재창이 줘. (...)

정 영 학 당분간 그럼 신규 무슨 나오는 사업은 계속 (...)

김 만 배 해야지.

정영학 예. (...)

김만배 (...)

정영학 네네.

김만배 오리역은. 오리역은 너랑 나랑 (...)
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고.

정영학 (...)

김만배 응? 많이 가져가.
너, 지분은 오직 너하고 나하고 하니까.

정영학 저는 (...) 저는 그냥 뭐 돈 그렇게 뭐..

김만배 (...)

정영학 스트레스 안 받으셨습니까?

김만배 그래야 내 것까지 뺏다고. (...) 빼는 것.

정영학 네..

김만배 왜냐면 모든 (...) 응? 그 따님이 살아.

정영학 저는 모르는 걸로..

김만배 따님이. 그런데 금강에서 빌라 짓는 기간 분양 받아서..

정영학 금강도 이번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아놓으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김 만 배 그럼. 좋아하지.

정 영 학 예. 그런데 이게 좀 제일 걱정이 이제, 테라스하고 본 건물이 분리돼있다.
아니다. 테라스가 맞다. 그거가..

김 만 배 그때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시에서 문제가 돼서..

정 영 학 이거 원래 옛날부터 문제 있던 겁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성남시만 안해줍니다.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김 만 배 응. 그런데 하여튼간 내가 내일 종길이한테 물어볼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런데 거기도 (...) 형이 대장동 (...)

정 영 학 아 그러면 (...)

김 만 배 대장동은 이 타고 다니는 게..

정 영 학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 만 배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있더라고. 돈 달라면 (...) 300 몇억이 올라가.
관리공사로 가면 200억이면..

정 영 학 그거를 감독을 그것도 몇 번을 (...)

김 만 배 (...) 300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애 착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이..

정영학 사람이 인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 해줘야..

김만배 그런데 완범이는 하여튼..

정영학 이번에 잘 혼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김만배 일요일날, 일요일날 (...) 그동안 혼냈어. 몇 번. (...)
그런데 성문이는 뭐 그냥 (...) 하고 얘기했는데, (...) 완범이는 (...) 술 먹고 나중에. 술 먹으면 안돼.

정영학 예예예.

김만배 소장이 누가 보냈든 (...) 감을 잡아야지.
(...) 얘기하는 걸 점점 얘기하면 직선을 그어서 아.. 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안돼.

정영학 안되죠. 예.

김만배 안돼. 완범이는 내가 물어보면 내 뜻을 조치하고 싶어 얘기해.
선 부분은 알아. 응? 그거 (...)

정영학 예..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 정리하는 거..

김만배 응. 그래서 내가 계속 힘들다 했는데, 형이 뭐 비밀리에 맨날 (...)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일요일날, 공교롭게 신 차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 뽕통 났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네.

김만배 그래서 신 차장을 만났는데 칭찬을 막 하길래,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

(...) 응? 응? 그래서 (...)

정영학 네..

김만배 그러니까 (...) 떠들어 대더라고. (...) 형이 보니까,

정영학 현대엔지니어링 현직 공무과에 남아있으면 잘하는 거죠.
그런 사람 공무과장 출신을 한명 줘..

김만배 데려다가 써야 돼. 그런데 (...) 새끼야. 응?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런데 진양희가 양완범이 (...)테니까 내일 어느정도 진양희하고 양완범이
하겠다 했지. (...) 떠들고 있고. 씨팔 씹어댔으니까. 이새끼 (...)
아주 대놓고 씹어댔지. 그랬더니 그다음날 거기를 갔더니 양완범이가 (...)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대. 얘기하라고. 유 상무도 들어오시오. (...)
회장이 (...)

정영학 (...)

김만배 그러게. 그래서 그랬어. 야, 너 이새끼야, 사표 낼려면 내고. 응? 회장님,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다시 한번 (...) 하겠습니다. (...)
그런데 1안, 2안 지금 아무 (...) 않고. B1 늦어졌는데 이 새끼야 뭘 (...)
니가 다시 (...) 응? 그리고 (...) 실패한 놈이. 피엠으로서.
실패했지? 그러니까, 실패했대. 이 새끼야 실패한 새끼가 무슨 새끼야 사
표를 내고.. 니가 내, 새끼야.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말고.
무협지 쓰니? 니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사표를 내든 이 새끼야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든 니가 결정해서 와. 응?

정영학 멋지게 하셨네요.

김 만 배 옥도 (...) 했어. 너 이 새끼야, 니 문제는 니가 써, 나한테. 사표를 가져 오든, 열심히 하겠습니까 반성문을 가져오든.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대. 열심히 해. 비용도 절약하고. 응? 너, 이게 뭐야? (...)

정 영 학 이성문 대표가 뭐를 하든 잘못되면 니 책임이야,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성문 대표 나가서 하니까는 (...) 있더라고요 그게.
이성문 대표가 어떻게 (...) 모른다 치고, 여기에서 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니가 피엠이니까 잘못되면 니 책임이야.. 해놓으셔야 됩니다.

김 만 배 그렇게 해놔어.

정 영 학 B1도 그래요. 방향을 좀 빨리 잡지.
1년동안 내갈려 뒤편 거잖아요. 양 전무한테..

김 만 배 아무 놈한테 실력이 없어서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 그리고,

정 영 학 (...)

김 만 배 응? 그리고 나서부터 양 전무가 회장님, 이거는 도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래야지 됩니다 그랬는데,

정 영 학 다 씹었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다 씹었죠?

김 만 배 성문이가 다 씹었지. 처음에.

정 영 학 최소 1년, 2년..

김 만 배 2년 걸려. 그거 놀면서 대장동도 논거야. 1년을 논거야. 응? 계집질이나

하고, 술 먹고, 카드나 쓰고.

형이 카드도 승인해주면 한도가 끝없이 가길래 뭐라고 그랬지.

그리고 돈 바꿔놓은 돈이 다.. 형은 쓴 것도 없어. (...)

정영학 이게 계속기업도 아니고 한 프로젝트에 딱 한판인데, 그걸 사실 (...) 이렇게까지 딴 방향으로 엇갈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김만배 성문이 한 것도 봐. 양 전무한테는 두 번째였어.. 진양의하고 양전무한테 했어. 그랬어. 야 이새끼야, 니네들 씨팔놈들아 시청에 가서 너 아는 새끼 있으면 손들어 봐.

시청에서 오히려 물어봤대. (...) 용인시청에 물어봤대. 건축과에서.

그랬더니 용인시청에서 누군지 모른대. 응? 누군지 모른대. 누구 알아?

성남시청에서도 니네들 주사를 통해서 화천대유 (...) 화천대유를 모르는데 누구 만나서 그동안 골프 치러 다니고 돈 가져갔는데? 누구 만났냐? 그랬어. 응?

용인시청에도 모른대. 성남시청에서 전화해봤대. 애네들 인허가 준공을 할 수 있는 애들인가.

그랬더니 이 새끼야, 다른사람 얘기를 하더래. 니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응?

그랬더니 진양의가 회장님, 사실은 (...) 내가 차장으로 시청에 왔다갔다 했고, 완범이는 (...)

열심히 해. 어차피 니네 (...) 늦었잖아, 내가 이랬어.

(...) 그런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입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 자세한 (...) 하고. 응?

야 이새끼야, 공원에 (...) 뚜껑을 덮는데 용적율이 3천평 팔려나갔어. 건폐율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 공원과에서 건축과에다 심의 올리면 건축과에서 뭐래냐. 니네들 듣보잡이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3천평이 팔려나갔는데 건폐율 계산도 못하는 새끼들이 도시계획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정영학 (...)

김만배 (...) 야 개네들이 뭐라고 하겠어? 공무원들이. 니네들이 (...)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니? 건폐율도 계산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실력으로 하겠냐고
그래. 응?

처음에 이 새끼야 (...) 공무원들이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시공사에다 얘기했는데, 시공사도 우리한테 얘기해도 (...)
너무 아니니까 이새끼야 광병채가 회장이 (...) 광병채가 얘기했대. 시에서
그러더라. 응?

정영학 예.. 문제가 있네요.

김만배 내가 그랬어. 이새끼야, 니네들이 이새끼야 (...) 건축과에서 이새끼야 공
문을 검토했는데도 그게 안되니까 반려한다고 했지만, 야 이새끼야 (...)
씨팔놈들아 (...) 내가 하니?

정영학 실무자들 지식이 있는 거구요, 형님은 일 처리할 지혜가 있는 거구요.
전부다 아니다 하더라도 (...) 잘 하셔야 됩니다.

김만배 아니, 내가 해줘야 돼? 야 이새끼야, 그리고 너 (...) 내가 이제 와서 너
한테 얘기하니까 대표이사도 놀래고 전무도 놀래고. 늦게 알았습니다. 죄
송합니다. 그게 말이 되니? 응?
내가 그러면 대표이사 애들이 (...) 죽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맨날 그
렇게 하더니. 문제야.
너 전력의 20%도 안돼. 영학이.

정영학 전혀 아닙니다. 잘 하는 사람들이 협조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완범이는 B1 (...) 한번 그렇게 해준 거지. 내가 쌍욕했어. 이 씨팔놈아,
무협지 쓰니? 니 일은 니가 해. 사표를 쓰든 이 새끼야, 회장님 명예회복
할 기회를 주십시오. 니가 알아서 해, 이 새끼야. 나한테 묻지 마.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하도 이성문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성문 대표한테 물어보면 안 시킨답니다.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그 이유는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김 만 배 뭐?

정 영 학 (...) 대표로서 자존심이 있죠. 뭐 하다가 인제 내가 (...)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김 만 배 그래. 공사비 같은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한번 보라고 그래. (...)

정 영 학 아니 (...) 공사비는 계속 원가계산.. 원가계산이 아니라, 제가 (...)할 때 토목공사비를 정말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 토목공사비 다 갖다 놓고 저희 예산 다 집어넣고. (...) 낮습니다. (...)해야죠.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예. (...)

김 만 배 야. 1,500 요 밑에 말 같은 소리를 해. 응? 1,200억 정도는 아주 세계 친 (...)

정 영 학 벌포지구가 평당 30만원 그렇습니다. 맥스 해봐야 900억입니다. 정말 그냥 잘했다고 했을 때. (...) 요즘에는 그것도 10만평, 12만평짜리가 30만원이고, 저희가 30만평짜리는 일단 동천 28만원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600억, 700억이거든요.

김 만 배 그런데 설계가 너무 늦었어. 설계 만약에 누가 했는데 (...) 설계가 1,600만원이야. (...)

정 영 학 (...)

김 만 배 근데 왜 돈을 줘? 돈을 주지 말고, 돈으로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내가 뭐라고 해야지. (...) 아니라, 나중에.

정 영 학 네네. 그리고 600억. 600억 짜리는 생각을 전혀..

김 만 배 (...) 보라 이제. 한 200억 되니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서 양완범이한테, 너..

정 영 학 (...) 이 사업도 나중에 또 관공사업이다 보면 현대엔지니어링 이거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수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 만 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봐. 그리고 완범이 그러더라고. (...) 음?
내가,

정 영 학 효성이 (...)지구 22만원 정도 하니까 660억이죠. (...)

김 만 배 그리고 신 차장은 200억 (...)

정 영 학 (...) 관리 쪽이 서울 쪽 (...) 시흥 쪽은 겹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잘 안하게 (...) 그쪽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시행은 (...)

김 만 배 (...)

정 영 학 그 정도면 형님이라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대로 흘러왔지 않습니까.

김 만 배 아니, 죽어버릴라고 그랬지. 그 새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1년은 성문이 B1 가지고 맨날 정일천이 찾아다니고. 응? 안 되는 거는 할라고 그러고. 시에서 B1이 그쪽 거냐고 물어볼 정도야. 응? 나한테.
내가 얼마나 챙피했는지. (...) 응?
우리가 성남시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응?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어떤 놈이 친해도 우리만큼 친하겠냐. 그지?

정 영 학 형님이 제일 친하시죠. 저는.. 형님이 관리를 잘 하시니까.

김 만 배 그런데 (...) 내가 얘기했지? 내가 이거 성남시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태광에서 돈을 뿌렸거든.
그런데 회장님이 이런 거는 회장님이 안하고 밑에 대표나 상무나 전무가 해야 되는데 (...)

정 영 학 하하. 예..

김 만 배 무슨 말이야. 응? 아니, 우리 그런 거라도 좀 많이 양보해달라고. 회장님이.
B1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났어. 그런데 돈은 되게 많이 가져갔어. 공무원하고 공친다고. 응? 현찰.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뭉텅이로 가져갔어. 1억씩 가져갈 때도 있어. 응?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현찰 가져가면 1억 순식간에 가져가고 그랬어. 응?

정 영 학 예.. 일이 잘 됐으면 원래는 그냥 뭐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안 됐으니까.

김 만 배 아니 그래서 내가 골프치는데.

정 영 학 상관없는 거죠.

김 만 배 칠 놈이 없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그지? 누구하고 치냐.
공사 관계자랑 보면 지네들이 이것 해야지, 애들 접대한 거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영학아, 형이 (...)

정 영 학 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김 만 배 내가 쉬는 날 (...) 안해.

정 영 학 아니, 잘하신 것 같애요.

김 만 배 그래서 개네들이 민망하니까. 내가 니네들 욕 보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 영 학 형님, 민망해야 돼요.

김 만 배 응. 왜냐면 니네들을 욕 보일라는 게 아니라, 형이 인제 알아야 되기 때문
에.

정 영 학 사실 최고대우이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다 사표 쓰고 나가도 내가 약속한 거 줄게.
나가. 응? 니네들 없어도 내가 이거 다 마무리 지어. 그렇잖아? 응? 뭘 갖
다가 일하니? 응? 저 뭐야, 포스코 소장은 골프도 안 쳐요. (...)
현대건설 소장도 (...)

정영학 (...)

김만배 형이 사귀었지.

정영학 아..

김만배 응? 고기도 보내주고 홍삼도 보내주면서 사귀어놨지.

정영학 아.. 대단하십니다.

김만배 그러면 문자로만 한번 해주고. 응?
그런데 한놈은 골프장에 돈도 안 써. 그래서 사귀어놨지. 응?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러면 문자로..

정영학 거기서 현장소장들이 제일 잘 아니까. 맨날 회의를 해보거나.

김만배 지금. 그러면 내가 그랬지. 포스코 소장이 잘하면 (...) 포스코 밑에 임마
직원들 중에 형이 (...)

정영학 그렇죠. 알아보지도 못하고.

김만배 응. 아니 또 있지. 수성고등학교 출신일 수도 있고.

정영학 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끄꿍 앓겠네요.

김만배 그런데 개네들은 현장 회의할 때 나온 얘기를 내가 하니까. 응?
개네들이 한 얘기를 내가 해.
그런데 이거는 (...) 업무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포스코 소장이나 현대 소장이 가서 얘기한 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겠지. 직원들한테. 개네들이 (...)
그런데 결국은 (...) 해주고 해줬잖아.

정영학 아..

김만배 (...) 단가 후려치기 해서 (...) 쫓아갑니다. 응? 하청업체 입찰을 6개월씩 기다리는 데가 어딴어. 마지막으로 (...) 만들어서 공사비 (...)텐데.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고 준공 과정 내에 서류상 (...) 관리공사로 (...) 감지 말고, 응?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야.

정영학 사실 뭐 저기가 너무 과하게 받으면 현대엔지니어링도 감사원 많이 불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가겠지만, 감사원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뭐뭐 짝 갖다놓고 니 네가 제일 비싸. 뭐 (...)할 것 같은데요.

김만배 그리고 형 친구가 감사위원회 (...) 은석이.

정영학 아, 그래요?

김만배 (...)

정영학 전혀..

김만배 그러더라고. (...) 우리 고문으로 앉히려 한다.

정영학 (...) 공동사업인데 (...)

김만배 감사위원회 (...) 형이 잘 마무리할게.

정영학 네.

김만배 B1에서는 (...) 그래야지 너도 거기서 부족한 것 빼고.

정영학 B1은 인허가만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 유동규}
그리고 동규 문제는 (...)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되는데 뭐.

그리고 진실은 실행하는 사람 만이 아는 거야. 아무리 (...) 그래도 새 사람이 있고 (...) 있는데, (...)

정영학 다들 고맙다고 해야죠 뭐.

김만배 그럼.

정영학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야 잘하는 거니까요.

김만배 그럼. 이게 금강을 하면 그때 잘 해서 해야 되는 거고. (...)

정영학 예..

김만배 응?

정영학 예. 지금도 현대차 갖고 계십니까?

김만배 그럼. 형은 엘지전자, 현대차, 엔씨소프트, 카카오 가지고 있지. 형은 작년에 67억, 요번에는 한 78억 정도 벌었어.

정영학 형님, 1년에 80억 버신 거네요.

김만배 너는 형이 주식 사라고 할 때 안 샀지?

정영학 회계사는 못합니다. 저희가 주식을 살려면 저나 관계회사는 심리실에 연금
파는 게 있는 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백건이라 파악이 안됩니
다. 그런데 모르고 샀으면 됐습니다.

김만배 옥이하고 똑같으니까.

정영학 (...) 형님이 안하시고..

김만배 안해도 나는 회사 시키는 대로 했지. 법인은.

정영학 법인도 괜찮을까요?

김만배 괜찮아. 내가 다 회사..

정영학 아.. 형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습니까? (...) 형님이 하
신 거죠?

김만배 그래. (...)

정영학 형님이 아니시면 됐죠 뭐.

김만배 그럼. 그리고 내가 현대차 출입기자가 아니니까.

정영학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응, 그렇지. 가지고 있는데.

정영학 현대차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만배 20배는 오를거야. 만약에 애플하고 손잡는 순간에.

정영학 거의 발표 직전 아닙니까?

김만배 그렇지.

정영학 형님, 삼성전자는?

김만배 삼성전자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정영학 가긴 가더라고요.

김만배 그런데 그게 떨어지지 않아, 삼성전자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엘지전자나 현대차나 삼성전자에 액면분할 (...)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에서는 액면분할해서 (...) 그지? 그런데 엘지전자는..

정영학 예, 예. 편하겠습시다. (...) 않고.

김만배 응. 엘지전자는 삼성전자의 액면 그냥 반 정도만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액면분할을 안해주겠지. 반 정도. 엘지전자가 회장이 (...)

정영학 이번에 3월달에 받으면 돈은 4월말이 되더라고요. 세금을. 한달 사이에 주식이 좀 오르면 이번에 좀..

김만배 너 50억 줄까? 미리, 50억 돌려줘? 3월말에.

정영학 사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으면요, 세금 40억 내고, 중간에 20억 남겨뒀고, 재창이 30억 주면, 10억 남아요. 그래서 그거..

김만배 50억을 그러면 50억, 배당 받아서 돌려줄게. 그리고 이자도 주고.

정영학 예. 돈 생기시면..

262억3천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그리고 재창이는 저기 연장해놔, 좀. 철탑소송 때문에.

정 영 학 한 10억정도 쥐도 팬찮을까요? 다 안주고 하면 또..

김 만 배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 가서 소송 들어가면 900억 받으니까. (...)

정 영 학 그냥 형님 돈 생기시면. 좀 여유 있을 때.

김 만 배 아니 아니 아니.

정 영 학 돈 많이 버셔서. 하하.

김 만 배 돌려줄게.

정 영 학 그거 해갖고,

이한성 (천하동인1호, 대탈아)

김 만 배 50억을 주라고 그렇게. 만약에 한성이보고 돈을 주라고 그렇게. 지금 한 200억 있거든. 주라고 그렇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다는 아니어도 반이라도 주고, 이자도 줄게.

정 영 학 주시면 한, 요번에 조금밖에 안 남는다 하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남는데. 세금 내면 10억 되는데요. (...)

김 만 배 현대차..

정 영 학 (...) 올렸습니다, 어제. (...)

김 만 배 (...)

정영학 (...) → 홍신근 회장 [머니투데이]

김만배 형은 저기, 만약에 회장이 200억 빌려달라는데 CD로 찍어서 해준다고 그래서 그거는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너는 몇개?

정영학 저는 뭐..

김만배 저거를 하자. 오리역을. 오리역을 해서 우리가 시를 상대로 (...)해서 저거를 (...) 풀어서 10층을, 15층을 풀어서 분양하면 (...)

정영학 네..

김만배 알았지?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래서 됐으면 (...) 응?

정영학 예.

김만배 동규가 남옥이가 그랬대. 만배형이 영학이 형님만 믿고 하고. 응?

정영학 제가 말은 잘 들으니까요. 제가 형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뭐..

김만배 응. 그러면서 영학이 형이랑 한 편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나한테 동규가 그러는 거야. 형,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진짜 조심해야 될 놈이 영학인 거 알아? 그래서, (너) 아직 멀었다..

정영학 하하하.

↓
응동규

김 만 배 개는 (...) 있는 애야.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한 회사에 91년부터 일했으니까 30년이고 이게. 그 어떤,
(...) 못 벗어납니다. 조직생활 오래 했으면.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 못하죠. 예, 그냥..

김 만 배 가자.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 올 때까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

정 영 학 저야 뭐.. 여기까지 온 게 다 형님 덕분인거 알죠. 하하.
감사합니다.

김 만 배 야, (...) 이런 얘기 하는 건 서로에 대한 얘기겠지만 (...) 눈에 보이는데
저거 못하겠니?

형은 저거 오리역이든 하얏트든. 하얏트보다는 나는 오리역을 하고 싶어.

정 영 학 네,네. 연말까지 뭔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거가요, 이부장이 내년에
자리를 옮길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아, 그래?

정 영 학 뭔가 하실 거예요, 연말까지.

김 만 배 그러면 올 연말에 저기,

정 영 학 하반기에는 뭔가 시작을..

김 만 배 A12 배당금 나오면 그거를 하자고.

정 영 학 네네. 거기다 좀 (...) 해놓고, 자리를 어디로 갈 건지를 좀 물어보고,

김 만 배 왜 자리를 옮길려고 그러지?

정 영 학 그 자리에 올해 1년을.. 이것 끝나는 거 보고 갈려고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분양은 이제 더 이상 안된대?

정 영 학 올해 뭔가 좀.. 그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 다들..

김 만 배 그런데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 하나은행이.

정 영 학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본부장으로.
본부장으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는 사실은 모른답니다.

김 만 배 형이 소개해줄까?

정 영 학 좀 어떻게 (...) 형님 편이죠. 형님 편. (...)

김 만 배 그러니까 어때? 형이 좀 (...)할까?

정 영 학 형님 저기네요.

김 만 배 응?

2021-2-16

정영학 전문이시네요.

김만배 전문이지. 응?

정영학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김만배 응?

정영학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김만배 아니, 이 부장 자존심 상하니까 몰래 해줘야지. 할라면.

하나뿐인 이병식 부장님.

정영학 그러니까 몰래 해줘야죠. 형님이 해주셔야죠. 몰래.

김만배 (...)

정영학 형님 사업을 위해서.

김만배 응, 그러니까. 이거 고마워~

정영학 네네, 형님. 명절 잘 보내십시오.

김만배 그래, 땡큐~

정영학 저, 월요일, 화요일날 어디 운동합니다. 아니, 시골 갑니다. 시골. 친구들 이랑.

김만배 아, 그래? 그거,

정영학 네, 형님.

김 만 배 그리고 SK로 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형은 B1 신경 안 쓸게.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SK로 하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응? 대장동 신경 쓰느라고 여력이 없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김 만 배 그래 그래.

정 영 학 네. 살펴 들어가십시오. 예. (끝)